

별첨 3

질의·응답 자료 (Q&A)

1. 제도도입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쳤는지?

- ☐ “개혁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나온다”라는 금융개혁 기본정신에 따라, 로드맵 마련 과정에서 업계/전문가/관계기관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
- ☐ 지난 '15.5월부터 금융위 중심으로 금감원·협회·업계 등이 참여한 「민관합동 TF」를 발족하여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·검토
 - 지난 4월부터 활동한 현장점검반에서 업계로부터 총 896건의 사항을 건의받아 검토
 - 보험협회·보험개발원·보험연수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업계의 의견을 정리한 총 283건의 제도개선사항을 건의받아 검토
 - 보험연구원에서도 별도의 개혁 필요사항에 대한 연구 결과를 TF에 전달
- ➔ TF는 15.5~9월 기간중 총 20차례 회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교환
- ☐ 이후, 금융개혁자문단·금융개혁회의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로드맵을 최종 마련
 - * 특히,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개혁자문단(보험분과)에서 총 52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여 이를 심층 검토

2. 금번 개혁조치가 실손의료보험 등의 보험료 급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?

- ☐ 가격상승요인과 가격하락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보험 자유화가 곧바로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단정짓기는 곤란
 - 일례로 표준이율, 공시이율을 폐지하더라도 일부 보험회사들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보험료 인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
- 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시장경쟁이 촉발되어 가격 안정화가 달성 가능
 - 보험료 자유화 조치의 성공적 사례로 꼽히는 1994년 독일사례도, 자유화가 경쟁촉발을 통해 가격하락을 유도한다는 경험을 보여줌
 - * 1994년 보험료 자유화 조치 전후로, 85~93년중 연평균 8% 수준이었던 자동차 보험료 상승률이 95~03년중 1% 수준으로 낮아지고 손해율도 하락(보험연구원)
- ☐ 다만, 실손보험 등 손해율이 높고 그동안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억제되어왔던 일부 상품의 경우 단기적으로 가격상승요인이 하락요인보다 더 클 가능성
- ☐ 이에 따라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
 - 실손의료보험과 관련된 규제완화는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표준약관도 당분간 존치하는 한편,
 - 상품심의위원회(가칭)에 소비자대표를 반드시 포함하여 표준약관 심의시 소비자 이익이 반영되도록 노력
 -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강화하여 보험료 관련 경쟁을 촉진
 - 온라인 전용슈퍼마켓을 활성화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전용보험상품 공급을 확대 등

3. 금번 개혁조치가 보험회사와 소비자에게 미칠 가장 큰 변화를 하나씩만 꼽자면?

- ☐ 금번 「로드맵」은 1993년 정부가 발표했던 「보험 자유화 조치」를 22년만에 실질적으로 완성하는 의미를 갖고 있음
 - 이는 보험산업의 기본 패러다임이 금융당국의 “규제규율”에서 경쟁을 통한 “시장규율”로 전환되는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전망
- ☐ 향후 변화된 패러다임하에, 보험회사들은 지금까지는 “당국규제” 때문에 힘들었다면 앞으로는 “시장경쟁”에서 살아남아야 할 것임
 - 즉, 효율적 경영을 위해 지금까지는 당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중요했다면, 앞으로는 시장과 소비자를 주목하며 경영해야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임
- ☐ 아울러, 변화된 패러다임하에서는 보험소비자들도 변화해야 함
 - 향후 시장에 새로운 상품이 다양한 가격으로 제공되고, 이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될 것인 만큼,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편익은 크게 증진될 것임
 - 다만, 지금까지는 연고에 의해 보험을 가입했다면, 앞으로는 상품과 가격을 꼼꼼히 비교·선택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임

4. 상품 및 가격규제 완화시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?

- ☐ 지금까지 엄격한 사전규제 등으로 보험회사들은 소비자들에게 혁신적이고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
 - 보험회사는 리스크와 손익이 불투명하여 판매해보지 않은 유병자 및 고령자 등 취약계층 대상의 보험상품 출시에 미온적이었고,
 - 리스크 헷지를 이유로 보험료가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갱신행 구조 및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제한장치를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었음
- ☐ 향후 자율성 확대에 따라 새로운 상품·서비스를 보다 다양한 가격으로 보다 손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것임

	현 행 (예)	변 경 (예)
보험료	·표준이율 ≒ 보험료 산출이율 * 표준이율 하락시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수준으로 보험료 산출이율 인하	·표준이율(폐지) ≠ 보험료 산출이율 * 보험료 산출이율 A사 3%, B사 4% 적용시, 보험료는 최대 20% 격차 발생
환급금	·공시이율 조정범위가 경직됨 * 공시이율 ≒ 공시기준이율의 ± 20% (현행 3.0%~3.6%)	·공시이율 A사 3%, B사 4% 적용할 경우, 환급율은 최대35% (원금 2,000만원 → 환급금 700만원)까지 격차 발생 ※ 40세 가입자, 10년납입, 65세 시점
비교 공시	·보험소비자는 상품이 복잡하고 보험료 차이가 미미하여 보험료 비교 포기	·회사별 보험료 차이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보험료 비교가 더욱 중요해짐 *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시 저렴한 온라인 자동차보험 등 출시 기대 (보험료 최대 10%이상 저렴)
상품 설계	·통계가 부족해도 안전할증 30%만 가능 * [보험사] 손실방지를 위해 보장하지 않는 사유 다량 양산 및 보험료 갱신 구조로 설계 * [소비자] 고령자/유병자 등은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상품 부족	·신규 위험보장은 안전할증 50% * [보험사] 포괄적인 보장 및 비갱신 구조 등 예측 가능한 보험상품 설계 * [소비자] 고령자 등 취약계층도 보험 상품 가입 가능

5. 금번 개혁조치가 규제완화에 지나치게 정도되어,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가 소홀해지는 것 아닌지?

- ☐ 금번 보험자유화 조치로 자칫 금융소비자 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
 - 부실상품 판매시 **보험회사에 대한 사후적인 책임을 대폭 강화**
 - 특히, 법규를 위배하여 소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보험상품 개발·판매시, 상품변경권고권 발동과 병행하여 사유공개 및 과징금 엄중 부과
 - 국민생활에 영향이 크고 의무보험적 성격이 있는 **실손보험 등의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상품심의위원회에 소비자단체 등 참여**
 -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활용한 보험상품 비교·공시를 확대하고 **가격이 저렴한 온라인 전용상품 지속 확대**
 - 불완전판매 및 과다수수료 요구 등 부당·불공정 행위에 대한 **감독·제재를 대폭 강화**
 - 특히 금번 조치에 따른 보험회사 및 판매현장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**시장혼란 등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, 적의대처할 것임**

6. 금번 개혁으로 가격이 자유화되어 일부 보험회사의 무리한 가격덤핑 등으로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?

- ☐ 금번 개혁조치로 일부 보험사의 가격덤핑 및 이로 인한 부실화 우려가 일부 있으나,
 -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의 경험, 우리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및 경영역량 등을 감안할 때 시장경쟁 압력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- ☐ 금융당국도 보험사의 자율성은 존중하되, **부당행위나 부실경영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감독함으로써**
 - 일부 보험사의 부실이 시장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
- ☐ 특히, 국제적으로 논의중인 IFRS4 2단계 도입도 예정되어 있는만큼
 - 건전성 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음

7. 온라인 슈퍼마켓 진행경과 및 보험가격 비교정보를 인터넷 포탈 등에 전면 개방하는 방안이란?

- ☐ 현재 온라인 슈퍼마켓은 시스템 구축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음
 - ☐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오픈(11월) 이후, 내년에는 동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보험상품 가격비교 공시자료를 인터넷 포탈이나 가격비교 사이트 등에 제공할 예정임
 - 즉,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에서 검색기능과 연계하여 가격비교 정보를 제공*토록 하여 접근성·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임
- * (예) 네이버 검색창에서 “실손의료보험”이라고 검색하면 검색 결과에서 보험 슈퍼마켓에서 제공하는 가격비교 공시정보가 바로 제공되는 방식

단독실손의료보험 상품비교

가입기준: 갱신형 1년만기 1년납, 월납, 최초계약기준, 일반상해 1급기준
가입금액: 입원비 5천만원 한도, 통원비 30만원(외래 20만원 / 처방조제비 10만원) 한도

아래 검색 조건 항목을 선택하신 후 [보험사 조회하기] 버튼을 클릭하시면 조건에 맞는 보험상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[보험내용 더 보기]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험내용을 알뜰한 줄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[온라인 가입]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보험사 사이트로 이동하여 해당 상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

회사	<input type="checkbox"/> 전체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체 순해보험사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체 생명보험사	<input type="checkbox"/> A보험사 <input type="checkbox"/> A보험사	<input type="checkbox"/> B보험사 <input type="checkbox"/> B보험사	<input type="checkbox"/> C보험사 <input type="checkbox"/> C보험사	<input type="checkbox"/> D보험사 <input type="checkbox"/> D보험사	<input type="checkbox"/> E보험사 <input type="checkbox"/> E보험사
자기부담금	<input type="checkbox"/> 전체	<input type="checkbox"/> 표준형(20%)	<input type="checkbox"/> 선택형 프(급여 본인부담금10%+비급여20%)			
가입일보	<input type="checkbox"/> 전체	<input type="checkbox"/> 상해입원	<input type="checkbox"/> 상해통원	<input type="checkbox"/> 질병입원	<input type="checkbox"/> 질병통원	
성별	<input type="checkbox"/> 전체	<input type="checkbox"/> 남	<input type="checkbox"/> 여	나이		

[보험사 조회하기](#)

총 00 건

번호	회사명	자기부담금	가입일보	보험료		가입연령	가입형태
				남	여		
1	A보험사	표준형(20%)	전체	20,000원	18,000원	60세이하 가능	온라인가입
2	B보험사	표준형(20%)	전체	21,000원	18,500원	60세이하 가능	온라인가입
3	C보험사	표준형(20%)	전체	21,500원	20,000원	60세이하 가능	온라인가입
4	D보험사	표준형(20%)	전체	22,000원	21,000원	60세이하 가능	온라인가입
5	E보험사	표준형(20%)	전체	23,000원	23,000원	60세이하 가능	온라인가입